

Weekly Brief  
R&I trends in **Europe**

KERC R&I News

# EU 연구혁신 정책 및 연구 동향

2023.03.22.

# Content

## ▶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- ① 집행위, 탄소중립산업법안 제안(3.16)
- ② 집행위, 핵심원자재법안 제안(3.16)
- ③ Pact for Skills: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술 파트너십 출시(3.21)
- ④ 가브리엘 집행위원, 실리콘 벨리에서 첫 유럽 혁신의 날 개최(3.21)
- ⑤ 한-EU 제19차 공동위원회, 브뤼셀에서 개최(3.8)
- ⑥ 뉴질랜드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현황 및 예산

## ▶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

- ① 집행위, MSCA 박사 네트워크 2022 공모 결과 발표(3.16)
- ② 유라툼 워크프로그램 `23-`25 발표...3년간 1억 3,200만 유로(3.17)
- ③ [EPRS] 디지털교육실행계획 현황 브리핑 및 기타 발간 자료

## ▶ EU 연구성과

- ① [성공 사례] 재난 현장의 상황 파악 향상을 위한 센서 기술
- ② AI 기술은 집안일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? 연구 결과



# 1.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## ① 집행위, 탄소중립산업법안 제안(3.16)

- 집행위는 EU 그딜린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기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안을 발표함(3.16)
  - 동 법안은 EU 탄소중립 기술의 탄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,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을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
  - 동 법안은 EU의 탄소중립 기술 제조 능력이 '30년까지 EU의 전체 보급 수요의 40%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이를 위해 유럽 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유치할 것
  - EU는 이를 통해 2030 기후·에너지 목표를 향한 진전과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EU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EU의 에너지 자립 노력을 지원할 것
- 법안은 전략적 탈탄소화 기술로 8가지 기술을 선별하고 지원
  - 이 기술들은 EU의 탈탄소화 목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들로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곧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기술임

태양광 및 태양열	전해조 및 연료전지	육상 풍력 및 해상 재생에너지	바이오가스/바이오 메탄
배터리 및 저장장치	탄소포집 및 저장	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	그리드 기술

- 이에 더하여, 동 법안은 추가 조치를 통해 ▲지속가능한 대체 연료 기술, ▲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첨단 원자력 기술, ▲소형 원자로, ▲관련 동급 최고의 연료 등의 탈탄소화 기술에 대하여도 지원할 것

○ 탄소중립산업법안은 탄소중립 기술 제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

투자 환경 개선	법안은 탄소중립 기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,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, 정보를 지원할 것
탄소포집 가속화	법안은 2030년까지 EU의 전략적 탄소포집 저장소의 저장 능력을 연간 5천만 톤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
시장접근 촉진	법안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공급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공공 조달 또는 경매에서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기준을 고려하도록 요구함
인재 양성	법안은 ‘유럽탄소중립플랫폼’의 지원과 감독 하에 ‘탄소중립 산업 아카데미’를 설립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생산을 지원하는 숙련된 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함
혁신 촉진	법안은 회원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유연한 규제 조건 하에서 혁신적인 탄소중립 기술을 테스트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
유럽탄소중립 플랫폼	플랫폼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조치를 조정하고 탄소중립산업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정보를 교환하도록 지원할 것

○ 더하여, 집행위는 EU 내 재생가능 수소 사용과 국제 파트너를 통한 수소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‘유럽 수소 은행’을 제안함

- 이는 유럽을 수소 생산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함으로, 집행위는 재생가능 수소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수소은행의 국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, 올해 안에 수소은행은 완전히 운영될 예정
- 혁신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재생가능 수소 생산에 대한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는 '23년 가을 진행될 예정이며, 선정된 프로젝트는 최대 10년 동안 생산된 수소량에 비례한 프리미엄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

<출처 : [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\\_23\\_1665](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_23_1665)>

## 2 집행위, 핵심원자재법안 제안(3.16)

- 집행위원회는 전략적 부문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‘핵심원자재법안’을 발표함

※ 아래 내용은 핵심원자재법안 중 연구혁신에 관련된 부분만 다름

- 기후중립, 디지털, 항공 및 방위 산업 등에 필수적인 핵심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유럽은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공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
- 동 법안은 EU의 핵심원자재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승인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연구·혁신·직업기술 투자
  - 집행위는 핵심원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의 활용 및 보급을 강화하고, 원자재 아카데미에 대한 대규모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핵심원자재 공급망의 인력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
  - 외부적으로 집행위는 파트너 국가가 원자재 추출 및 가공 능력 등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원할 것
  -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(‘21-’24)은 원자재의 탐사, 추출, 가공 및 재사용, 재활용 및 복구 프로젝트에 최대 4억 7천만 유로를 투자
  - 신유럽혁신어젠다(EIA)에 따라 유럽혁신이사회(EIC)와 유럽혁신기술연구소(EIT)를 통해 연구혁신 발전의 보급 및 활용이 강화될 것
  - 도전과제에 맞는 R&I 투자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원자재의 대체를 포함하여 첨단 소재에 대한 회원국과의 조정된 실행계획이 제시될 것
  - 향후 몇 년 동안의 R&I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한 전략적 이행 계획이 개발될 것
  - 유럽의 배터리 원자재 재활용을 위한 신흥 산업의 예에 따라 다른 핵심원자재 재활용 기술은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지원되고, 회원국의 R&I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업화로 확장할 것

<출처 : [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\\_23\\_1661](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_23_1661)>

### ③ Pact for Skills :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술 파트너십 출시(3.21)

#### ○ 재생에너지 기술 파트너십

- 재생에너지무역협회와 청정기술설치업체 대표는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위한 대규모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함
- 파트너십은 '30년까지 EU의 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'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의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파트너십은 유럽 내 양질의 일자리와 경력 경로를 창출하고 관련 국가 당국, 교육 기관(특히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), 훈련 플랫폼 등과 함께 기술 개발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권장 사항을 제안할 것
- 이는 15번째 기술 파트너십으로 유럽기술아젠다의 주력 이니셔티브인 Pact for Skills에 따라 설립되었으며, 그린딜산업계획, REPowerEU, 유럽 기술의 해에 이어 최근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할 것

※ 더하여 동 파트너십은 청정에너지 직종에 더 많은 여성을 유치할 것

#### ○ 배경

- '20년에는 EU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약 130만 명이 종사하였으며, 이는 청정에너지 솔루션의 가속화된 보급에 따라 더욱 증가할 예정
- REPowerEU 목표를 달성하려면 '30년까지 모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3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
- 예를 들어, 산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메탄 및 히트펌프 부문에는 '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,
- 마찬가지로 태양광 에너지 부문에서도 100만 명의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, 이 중 제조업에서만 최대 6만 6천 개의 일자리가 필요함

<출처 : [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mex\\_23\\_1809](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mex_23_1809)>

#### 4 가브리엘 집행위원, 실리콘 벨리서 첫 유럽 혁신의 날 개최(3.21)

- 가브리엘 연구혁신 집행위원은 EU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50여 명의 대표단과 함께 실리콘 벨리를 방문함
  - ‘유럽 혁신의 날’ 동안 참가자들은 실리콘 벨리 혁신 커뮤니티와 토론에 참여하여 인재 및 투자 유치, 개방형 혁신, 모범 사례 교환, 두 생태계 간의 격차 해소 등을 논의함
  - 또한, ‘유럽 혁신의 날’ 행사에서는 벤처 자본가, 기업가, 투자자 및 기업이 유럽 혁신 모델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‘유럽 혁신 아고라(Agora)’도 진행됨
- 혁신 인재 플랫폼([Innovation Talent Platform](#))
  - 유럽 혁신의 날 행사에서 가브리엘 집행위원은 신유럽혁신아젠다(EIA)에 따라 유럽에 인재 및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 인재 플랫폼을 발표함
  - 플랫폼은 첫 단계로 자금 조달 기회에 대한 정보와 여러 국가의 연락망과 함께 EU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한 디지털 툴킷을 제공함
  - 두 번째 단계로 플랫폼은 혁신가, 기업가 및 유럽에서 일하고 생활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모든 인재를 위한 중매 도구로서 기능할 것

<출처: [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mex\\_23\\_1809](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mex_23_1809)>

## 5 한-EU 제19차 공동위원회, 브뤼셀에서 개최(3.8)

- EU-한국, 글로벌 안보 및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
  - 공동위는 양자,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분야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는 기회로,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측은 새로운 미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과정을 개시함
  - EU 측은 EU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 부의 Gunna Wiegand가 이끄는 대표단이 참여하였으며, 한국 측은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의 대표단이 참여함
- 한-EU 디지털 파트너십 및 연구혁신
  - 양측은 첫 번째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에 기대를 표명하였으며,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
  - 연구혁신에 대해 양측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탐색적 회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
  - 양측은 항공·해운 분야 협력의 확대를 논의하였으며, 제3국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포함하여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함
- 한-EU 그린 파트너십
  - 양측은 한-EU 그린파트너십의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것을 환영
  - 양측은 두바이에서 COP28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파리 협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1.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함
  - 또한, 양측은 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CBD COP15에서 체결된 합의를 이행하고 순환 경제와 청정에너지를 향한 협력을 촉진할 것
- 기타 논의 내용
  - 이 외에도 양측은 러-우 전쟁, 북한 핵무기 대응에 대한 협력, 공급망 탄력성 강화, 한-EU 자유무역협정,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강화, EU의 인도-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 등을 논의함

※ 차기 한-EU 공동위원회는 '24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

<출처 : [https://www.eas.europa.eu/eas/republic-korea-19th-joint-committee-european-union-takes-place-brussels\\_en?s=179](https://www.eas.europa.eu/eas/republic-korea-19th-joint-committee-european-union-takes-place-brussels_en?s=179)>



## 6 뉴질랜드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현황 및 예산

### ○ 뉴질랜드 HE 준회원국 가입 현황

- 뉴질랜드와 EU가 지난 12월 호라이즌 유럽(HE) 준회원국 가입 협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뉴질랜드 연구원은 HE에 참여할 수 있음
- 양국의 협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, 참여 예산도 확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양국 간에 합의된 과도기적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연구자들은 HE 필라2에 참여할 수 있게 됨
- 뉴질랜드 교육부는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참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며, 이를 통해 집행위와 지난 과도기적 협정을 맺음

### ○ 뉴질랜드 HE 분담금

- 집행위원회가 지난주 EU 이사회에 제출한 제안서는 뉴질랜드의 참여 비용이 1,89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
- 뉴질랜드의 HE 준회원국 가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,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모두 동 제안서를 승인해야 함
- 뉴질랜드의 HE 참여 분담금은 뉴질랜드 연구원의 HE 사업 참여 성공률 추정치를 기반으로 계산됨
- 정부는 뉴질랜드 연구원들이 HE에서 40~50개 그랜트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며, 이는 Horizon 2020에서 받은 그랜트의 두 배에 해당함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Horizon-Europe/new-zealand-government-says-its-contribution-horizon-europe-could-be-adjusted-according-how>>

## 2.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

### ① 집행위, MSCA 박사 네트워크 2022 공모 결과 발표(3.16)

- MSCA 박사 네트워크, 149개 우수 박사 프로그램에 총 4억 2,940만 유로
  - 149개 프로그램을 통해 1,650명 이상의 고도로 숙련된 박사 후보생의 교육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
  - 이 중 14개의 산업 박사 과정은 연구원을 교육하고 학계 외부, 특히 산업, 기업 및 공공 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며, 12개의 공동 박사 과정은 공동 학위 및 여러 학위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과정을 제공함
  - 선택된 프로젝트는 17개국의 조직에서 총괄하며, 이탈리아가 20개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으며, 독일(19개)과 벨기에(18)가 그 뒤를 이음
  - 첫 번째 프로젝트는 '23년 여름에 시작될 예정이며, MSCA 박사 네트워크 2023 공모는 '23년 5월에 개시될 예정

<출처 : <https://marie-sklodowska-curie-actions.ec.europa.eu/news/doctoral-networks-2022-call-results>>

### ② 유라툼 워크프로그램 '23-'25 발표...1억 3,200만 유로 투자(3.17)

- 집행위는 유라툼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원자력 연구에 총 1억 3,200만 유로를 지원함
  - 유라툼 [워크프로그램\('23-'25\)](#)은 소형원자로의 안전성, 핵 물질 개발,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에 초점을 맞춤
  - 유라툼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표는 원자력 안전, 공급 보안 및 방사선 보호의 개선을 포함하여 원자력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호라이즌 유럽의 일부로써 그 목표 달성을 보완함
  - 집행위는 오는 4월 4일 브뤼셀에서 유라툼 행사를 개최하여 해당 워크 프로그램의 주요 우선순위를 제시할 예정

<출처 : [https://research-and-innovation.ec.europa.eu/news/all-research-and-innovation-news/researchers-receive-eu-32-million-through-new-euratom-research-and-training-work-programme-2023-2025-2023-03-17\\_en](https://research-and-innovation.ec.europa.eu/news/all-research-and-innovation-news/researchers-receive-eu-32-million-through-new-euratom-research-and-training-work-programme-2023-2025-2023-03-17_en)>

### 3 [EPRS] 디지털교육실행계획 현황 브리핑 및 기타 발간 자료

#### ○ 디지털교육실행계획 진행현황 브리핑

- '20년 9월 채택된 집행위원회의 주력 이니셔티브인 디지털교육실행계획 (DEAP) 2021-2027은 EU 수준에서 강화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원되는 고품질의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교육 제공을 목표로 함
- 동 정책 브리핑은 DEAP의 정책 배경, 실행방안별 진행현황, 해당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등을 다룸

<다운로드 : [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RegData/etudes/BRIE/2023/745689/EPRS\\_BRI\(2023\)745689\\_EN.pdf](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RegData/etudes/BRIE/2023/745689/EPRS_BRI(2023)745689_EN.pdf)>

#### ○ 유럽의회조사처(EPRS) 기타 발간물

브리핑	<a href="#">기계 지침 개정 진행현황</a>	3.17
브리핑	<a href="#">인종 및 민족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EU 법률 및 정책</a>	3.20
연구	<a href="#">농식품 부문 내 인공지능의 활용, 위험 및 영향</a>	3.17
연구	<a href="#">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</a>	3.1

### 3. EU 주요 연구성과

#### 1 [성공 사례] 재난 현장의 상황 파악 향상을 위한 센서 기술

- 재난 현장 속 긴급구조대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 인식 기능 강화
  - EU가 지원하는 ASSISTANCE 프로젝트는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상황 인식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웨어러블, 로봇, 드론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 장치를 개발하고 테스트함
  - 이러한 센서 장치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특정 구역의 독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가스 감지기, GPS와 생체 신호 추적 장치 등이 포함됨
  - 예를 들어, 연구팀은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 더 나은 네트워크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Wi-Fi 액세스 포인트가 통합된 드론 편대를 배치함
  - 또한 연구팀은 인프라를 손상시키거나 구조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드론이 주변에 있는지 감지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드론도 개발함
  - 이러한 드론은 센서를 활용하여 긴급 대피가 불가능한 피해 지역을 감지하고 안전한 대피 경로를 안내할 수 있음
  - 센서를 통해 얻은 실시간 영상, 물체의 위치, 대피 경로, 임시 네트워크 범위 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는 중앙 집중 상황 인식 플랫폼에 통합됨
  - 플랫폼은 수집된 데이터에서 각 비상 상황에 필요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각기 다른 응급 서비스에 전달할 수 있음
- 긴급구조대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교육 네트워크
  - 더하여 동 프로젝트는 가상 현실, 혼합 현실 및 증강 현실로 강화된 교육 모듈을 통해 긴급구조대의 능력을 향상하고자 함
  - 이를 위해 연구팀은 긴급구조대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되고 실제 사건에 기반한 일련의 교육 모듈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실교육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긴급구조대를 통해 테스트하였음

## ASSISTANCE

- 펀딩 : Horizon 2020 - Secure societies
- 기간 : 2019.05.01.~2022.07.31.
- 예산 : 약 640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UNIVERSITAT POLITECNICA DE VALENCIA (스페인)

<출처 : <https://ec.europa.eu/research-and-innovation/en/projects/success-stories/all/harnessing-sensor-technology-boost-situational-awareness-emergencies>>

## 2 AI 기술은 집안일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? 연구 결과

### ○ 가사 노동의 자동화 가능성 연구

- ERC가 지원하는 FAMSIZEMATTERS 및 GenTime 프로젝트는 AI 기술의 발전이 무급 가사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
- 이를 위해 연구팀은 일본과 영국의 65명의 AI 전문가와 함께 가사와 노인 및 아동 돌봄 작업의 자동화 가능성을 추정하였음

### ○ 자동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가사 노동은 돌봄 연구

-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가 가사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39%가 향후 10년 이내에 자동화될 수 있다고 예측함
- 가장 자동화가 가능한 작업으로는 식료품 쇼핑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59%까지 10년 이내에 자동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
- 한편, 물리적 육아는 21%만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자동화 가능성이 적은 작업으로 나타나는 등 추정치는 작업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남
- 일반적으로 돌봄 노동은 자동화 가능성의 평균 추정치가 28%로 자동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가사 노동의 경우는 추정치가 44%로 더 쉽게 자동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돌봄 작업이 자동화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

언급한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, 사람들이 보육을 기계에 위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용인되는지에 대한 문제나 그것이 아동의 발달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었음

## ○ 국가 및 성별 간 차이

- 가사 노동의 자동화 가능성에 대해 영국과 일본 AI 전문가 간에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으나 일부 이견도 존재하였음
- 유사한 선진국을 여겨지는 일본과 영국 간의 이러한 차이는 기술 및 경제 역사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- 영국 전문가(42%)들은 일본 전문가(36%)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이 10년 이내에 더 많은 가사 노동이 자동화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, 동 연구의 저자는 그 이유로 '영국에서는 기술이 노동 대체와 더 관련이 있기 때문'이라고 추측함
- 더하여 남성과 여성 전문가 간의 예측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, 영국에서는 남성 전문가가 여성 전문가보다 기술적 잠재력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이었으며,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기술에 대해 더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함
- 한편, 일본에서는 결과가 그 반대로 나타났는데, 저자는 그 요인을 '일본의 극명한 성별 격차 때문일 것'이라고 추측함
- 예를 들어 일본의 남성은 아내에게 집안일을 맡기다 보니 가사 노동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

**FAMSIEMATTERS - 가족 규모 문제 :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 불평등의 (재)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**

- 펀딩 : ERC
- 기간 : 2016.07.01.~2022.06.30.
- 예산 : 약 190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THE CHANCELLOR, MASTERS AND SCHOLARS OF THE UNIVERSITY OF OXFORD (영국)

## GenTime - 아시아 및 서양 복지 체제 내 성 불평등의 시간적 구조 연구

- 펀딩 : ERC
- 기간 : 2018.10.01.~2024.09.30.
- 예산 : 약 200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OXFORD UNIVERSITY (영국)

<출처 : <https://cordis.europa.eu/article/id/443030-does-more-ai-mean-fewer-chores>>